

도시문화재생사업에 따른 마을 환경 및 주민 인식 변화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벽화마을과 동구 용기중기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

김국진, 이수현, 황윤정

<p>1. 서론</p> <p>1)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2)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2.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및 개념</p> <p>1) 선행 연구 고찰</p> <p>2) 개념적 고찰</p> <p>3) 도시재생사업의 유형</p> <p>3. 연구대상지 분석</p> <p>1) 삼덕동 벽화마을</p> <p style="padding-left: 20px;">(1) 사례지 개요</p> <p style="padding-left: 20px;">(2) 삼덕동 벽화마을 사업 분석</p> <p>2) 용기중기 행복마을</p> <p style="padding-left: 20px;">(1) 사례지 개요</p> <p style="padding-left: 20px;">(2) 용기중기 행복마을 사업 분석</p> <p>3) 연구 대상지 비교</p>	<p>4. 도시문화재생사업이 마을 환경 및 주민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p> <p>1) 설문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p> <p>2) 설문 조사 내용</p> <p style="padding-left: 20px;">(1) 벽화마을 방문객 만족도</p> <p style="padding-left: 20px;">(2) 마을 만들기 사업 인식</p> <p style="padding-left: 20px;">(3) 사회 환경적 전망</p> <p>3) 심층면접</p> <p>4) 도시문화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p> <p style="padding-left: 20px;">(1) 벽화마을 문제점 도출</p> <p style="padding-left: 20px;">(2) 해결 방안</p> <p>5. 결론 및 한계점</p>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도심지역의 경우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와 함께 인구 및 산업의 교외유출로 인구 및 고용감소와 경제침체 등 경제·사회적인 쇠퇴현상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즉,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퇴하게 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통하여 쇠퇴한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단계라 사업의 목적이 모호한 점이 있고, 방법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주현, 2014)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 벽화마을은 2006년부터 골목길, 산의 중턱을 지나는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마을 재생 정책의 일환인 ‘공공미술사업’으로 생성되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처럼 벽화마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 것과 같기에 활력이 저하된 도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성영아, 변민주, 2013).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를 대구 삼덕동 벽화마을과 동구에 위치한 옹기종기 행복마을로 잡았다. 이 두 대상은 사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마을의 벽화사업 진행현황과 주민들의 사업 인식을 비교할 수 있고, 더불어 두 지역 모두 매체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비교적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벽화마을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삼덕동 벽화마을과 옹기종기 행복마을 거주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되는 벽화마을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마을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대구 중구에 위치한 삼덕동 벽화마을과 동구에 위치한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특성을 조사하고 둘째, 각 지역의 현황과 함께 사업을 분석하고 셋째, 벽화마을의 방문객과 거주민, 주변 상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며 벽화마을에 대한 주변 인식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벽화마을조성’을 통하여 마을 환경과 주민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알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정의와 예시, 주민참여와 주민 조직의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 삼덕동 벽화마을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 등을 선행연구로 고찰하였다.

대구 중구 삼덕동 벽화마을과 대구 동구의 옹기종기 행복마을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2016년 11월 5일~19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벽화마을 사업에 대한 방문객·거주민의 만족도, 벽화마을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도출해보았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연구대상지 분석과 설문지, 인터뷰의 결과를 소개하고, 벽화마을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 사업 과정,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벽화마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인터뷰에서 도출되는 거주민이나 방문객들의 불만 사항이나 발전의 여지가 있는 의견들을 수집해 향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벽화마을의 여부가 거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던지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및 개념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련 논문에서는 정의와 배경, 도시재생사업의 종류와 방법 등을 파악하고, 벽화마을 관련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벽화마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문제점과 대응방안, 주민참여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벽화마을의 영향에 관한 논문 연구와, 벽화마을과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 표 1 >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다.

< 표 1 > 선행연구 논문

1. 벽화마을의 영향에 관한 논문 연구	
이규선·황희연·홍의동·성순아(2014),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조직형성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개인만족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이호상·이명아(2012)	최근 환경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나인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해당사례를 연구 및 분석
김지영(2008)	수익모델이 미약한 작은 마을의 경우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마을단위 문화사업과 예술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을 모색하여야하고 이러한 활동이 마을의 홍보에 도움이 되며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줌
안지은·이예본·차아영·박경옥(2014)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벽화마을을 선택하여 도입하였고, 벽화를 통하여 노후화된 마을을 개선하는 계기에 대한 분석
2. 벽화마을과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하나(2014)	벽화마을 지역 생활만족도에 외부 환경적·경제적·사회 환경 여건들과 주택현황을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관 주도형·민간주도형·주민주도형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종류와 사업주체에 따른 특성에 대해 정리
김주현(2015)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영향요인을 분석을 통해 주민 참여 과정에서 학력과 월 소득이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
조윤미(2011)	벽화마을 만들기 대표사례들의 공통점 및 인과관계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적 발생요인이 중요하며 벽화 만들기에 있어 마을리더의 실행능력이 중요하고, 방문객에 대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권영식(2014)	마을 만들기 사업 전과 사업 후로 나누어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 본 연구 결과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였고,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각기 다름을 확인 가능

이 외에도 구경하(2016)의 논문을 통하여 정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한 비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종합한 것보다 한 지역의 다른 사례들로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삼덕동 벽화마을과 용기중기 행복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윤옥경(2008)의 논문을 통해 삼덕동 벽화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덕동 벽화마을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 용기중기 행복마을에 대한 논문이 없어 이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용기중기 행복마을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개념적 고찰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배경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정비 사업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 주입을 통해 도시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재개발, 도시재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홍종열, 2012). 노후 된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거주민은 삶을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하게 되어 옛 도시와의 연결 고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유형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Ruth Glass가 런던 내부에서 일어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고소득, 중산층의 거주 지역으로 대체되는 도시 변화 현상을 설명할 때 처음 사용되었다(Less, 2008). 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과 도시 내부의 쇠퇴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젊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쇠퇴한 도시 내부를 재생시키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변화에서 시작한다(박신의, 원혜원, 2015).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서구에서 연구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소매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이선영, 2016) 그 중에서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되었던 지역에 독특한 문화 예술 공간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강조시키고, 경제적,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시킴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교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특정한 주체가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며 외형적 부분의 개선과 더불어 도시의 경쟁력을 위한 개발을 증진시킨다. 또한 유입된 중산층들이 쇠퇴한 도시 내부를 재생시키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며, 지방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다시 중산층을 도시 내부로 유인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하나(2014)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화동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시작되어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일대에 낙산공원을 조성하였음에도 주민의 유출과 낙후된 환경이 지속되자, 낙산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벽화마을로 재 탄생시켰다. 최근 2013년부터는 이화동 인근에 있는 민간인에 의한 문화재생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카페나 여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변화가 주어졌다. 허나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거주민의 배제와 진출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이 지워지고, 거주민의 공동체 인식이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손상되는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을 밝히는 바이다.

3) 도시문화재생사업의 유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크게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위에서 생활재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생활재생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복지 교육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주민 참여 활성화와 연관되어 도시 문화 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시문화재생사업의 유형 중 논문에서 쓰일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벽화마을의 개념을 소개한다.

(1)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는 거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일종의 지역 사회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는 일본의 ‘마치즈꾸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1990년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의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이 자연스레 마을 만들기로 번지게 되고 대중적인 지역 사회운동이 된 것이다. 지역사회구축을 위한 공동체사업은 정부주도, 주민주도가 아닌 정부와 주민의 상생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의 주체만으로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민·행정·전문가·시민단체 등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발휘할 때만이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가 추진 가능하다. 참여주체들은 수평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권영식, 2014).

(2) 벽화마을

벽화마을은 보통 오지 마을이나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미관을 생각하여 벽에 그림을 그려 넣는 프로젝트가 실시되면서 벽화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핫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트인 시티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전국 10개 시도에서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지금 지역홍보를 위하여 생긴 벽화마을은 전국에 40여 곳이 넘는다(송효진, 2011).

벽화마을 조성 계기는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경제 활성화, 영화 촬영으로 인한 홍보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담장 허물기는 1996년 전국 최초로 대구 서구청의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에서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허물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신의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건물주에게 구청에서 직접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여유 공간에 조경을 조성하고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다. 주민들은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효과와 삭막한 골목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서울중구청 홈페이지).

3. 연구대상지 분석

1) 삼덕동 벽화마을

(1) 사례지 개요



< 그림 1 > 삼덕동 벽화마을 입지 (출처 : 네이버지도)

삼덕동 벽화마을은 삼덕동1가가 위치한 서쪽으로 지하철1, 2호선이 관통하는 대구 중심지역이며, 가운데 지역인 삼덕동2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있어 외래객의 왕래가 빈번하여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삼덕동3가가 위치한 동쪽으로는 많은 주민이 수십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정주성이 높은 한옥이 많은 지역이나 최근 원룸 등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다.

(2) 삼덕동 벽화마을 사업 분석

1996년 삼덕동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마을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대구 YMCA 사무총장이 집의 담장을 허물었고, 1999년 삼덕동 주민 센터(그림2)도 담장을 허물었다. 대구 YMCA는 2009년 구청과 주민 센터의 도움으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주민자치센터, 빛살미술관, 동부교회, 마고재(그림3) 등의 담장을 허물었다. 담장이 사라진 개방된 정원을 조경학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을 위한 골목공원으로 조성하고 연이어 골목공원을 활용한 꾸러기환경그림대회와 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영남일보, 2014.07.01.).



< 그림 2. 삼덕동 주민 센터 >



< 그림 3. 마고재 >

담장 허물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삼덕동 마을 만들기의 직접적 동기는, 여타 복잡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98년 7월부터 삼덕동 마을 내에 가정집을 개조하여 대구 YMCA가 운영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가출청소년쉼터’가 민원 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가출청소년관련 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사적 공간중심으로 원자화, 고립화된 도시 주거공간의 공동체성 복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YMCA 실무자의 개인집의 담장을 허물게 되었다(경남일보, 2013.10.17).

현재 담장 허물기 1호인 삼덕동 201번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마을 만들기 센터로 사용된다. 사무실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빗살미술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옥으로 삼덕초등학교 교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도부터 보수작업을 거쳐서 빗살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2006년은 삼덕동3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정해져 위기를 맞은 시기로 이를 막고 주민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머머리섬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대구 YMCA에서 대구 중구청의 예산 지원 아래 환경설치미술가, 주민들과 함께 신천 산책로로 진입하는 삼덕 지하보도와 대봉지하보도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새로 단장하였다. 현재도 계속해서 마을축제가 진행 중이며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매일신문, 2007.06.13).

2) 용기종기 행복마을

(1) 사례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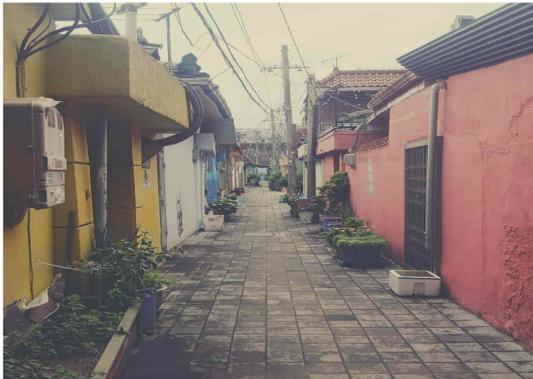
< 그림 4 > 입석동 용기종기 행복마을 입지 (출처 : 네이버지도)

용기종기 행복마을은 대구 동구 입석동 932-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영진전문대학,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인 동촌역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옛 기차가 다니던 철로를 정비해 놓은 동촌역이 주변에 있어서 관람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써 대중교통 정비가 잘되어 있고, 접근성이 편리하여 매달 천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한다. 주로 테이트 코스로 많이 이용되며 크지 않은 규모로 15~20분 정도 소요된다.

(2) 용기종기 행복마을 사업 분석

용기종기 행복마을은 대구 동구 동촌로 3길 일원에 회색빛이던 마을 집들이 다양한 벽화를 조성해 기존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형성된 이

곳은 주변에 대구선 철길이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고, K2 비행장이 바로 옆에 있어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으로 점점 슬럼화 돼 가고 있었다. 이에 동구청에서는 2008년 대구선이 폐쇄되자 철길을 걷어내고 마을 구석구석에 기찻길 산책로와 텃밭, 작은 쉼터를 조성하였다(김태원, 대구 동구청 '옹기종기 행복마을' 조성 화제). 벽마다 다양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으며, 벽 앞과 골목길(사진5)마다 많은 화분이 놓여 있는 게 특징이다. 착시효과를 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 놓아 사진 찍는 재미를 주었다. 실제로 철길이 있던 자리에 기찻길 그림(사진6)을 그려놓아 실제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뉴시스,2013.12.15).



< 그림 5. 골목길 >



< 그림 6. 기찻길 그림 >

칙칙한 회색 분위기의 마을이 파스텔 색조로 바뀌면서 외부의 발길이 전혀 없었던 이곳에 매일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성공적인 반응에 힘입어 동구는 지난 5월부터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800여㎡ 공간에 추가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구선 철길을 철거한 자리에 입체적으로 그려뒀던 철길 그림도 포토 존으로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입체감을 더 살려 100여m를 연장할 예정이다. 구청은 마을 주변의 변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마을에 그려진 철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동촌역은 지난달 27일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해 개관했다. 동촌역 작은 도서관은 2천200여 권을 책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을을 구경하고 가족들과 쉬어 가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재단장 작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구청은 환경개선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구일보,2014.06.11).

3. 옹기종기 행복마을과 삼덕동 벽화마을 비교

삼덕동 벽화마을과 옹기종기 행복마을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입지가 좋다는 면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삼덕동 벽화마을은 1996년부터 담장 허물기를 시작하고, 정부가 주최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의 역량이 축적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 옹기종기 행복마을과 달리 삼덕동 마을 만들기의 축제와 활동들은 마을에 한정된 범위가 아닌 대구 전역으로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비해 옹기종기 행복 마을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삼덕동 벽화마을과는 달리 정부가 대상이 되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 표 2 > 삼덕동 벽화마을과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비교

구분	삼덕동 벽화마을	옹기종기 행복마을
위치	대구 중구 삼덕동	대구 동구 입석동
배경	1996년 삼덕동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마을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2008년 대구선이 폐쇄되자 철길을 걷어내고 마을 구석구석에 기차길 산책로와 텃밭, 작은 쉼터를 조성
관련 축제 및 사업	머머리섬 축제, 빛살미술관	친환경 옹기종기 행복마을
진행 중인 사업	2014년 안전행정부의 ‘희망마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2015년부터 삼덕동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음	지역주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꿈을 잡는 청소년, 꿈을 키우는 마을을 주제로 ‘2016 옹기종기 행복마을 동촌동 꿈 마을 축제’ 진행되고 있음
활동 주체	YMCA 시민단체	지역 주민, 동구청

4. 도시문화재생사업이 마을 환경 및 주민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1) 설문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

삼덕동 벽화마을과 옹기종기 행복 마을은 벽화 조성 이후 블로그나 지인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테이트 코스로 알려지게 되면서 거주민뿐 만 아니라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 재생사업에 따른 마을 환경과 주민 인식 변화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벽화마을 사업이 이루어진 대구시 중구 삼덕동 벽화마을(이하 삼덕동)과 대구시 동구 입석동 옹기종기 행복마을(이하 옹기종기)의 방문객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심층면접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설문조사 대상은 벽화마을의 방문자와 주민으로 구성하였다. 방문자의 경우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민의 경우 현장 설문지와 함께 심층면접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도시 재생 사업과 벽화마을에 관련된 논문, ‘세 바퀴로 달리는 희망 자전거-정희샘과 떠나는 삼덕동 문화기행’을 참고하여 응답자 특성, 벽화마을 만족도 조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사회 환경적 전망 등 큰 주제로 나누어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설문 진행은 연구자가 방문객과 거주민에게 교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옹기종기 거주민의 경우 노년층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지를 읽어드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삼덕동 거주민의 경우 상가주민들의 설문지 응답이 많았다. 인터넷 설문 조사의 경우 53명의 응답자가 있었고, 조사 매체 특성상 20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장조사와 인터넷 조사 총 10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 표 3 > 설문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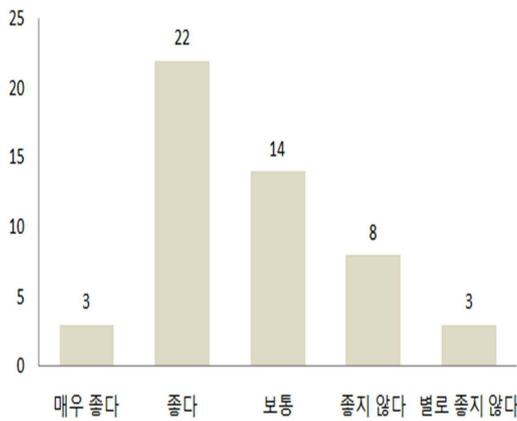
설문 조사 지역	대구 중구 삼덕동 벽화마을 · 대구 동구 입석동 옹기종기 행복 마을	
설문 수집 방법	연구자가 직접 교부 및 회수 · 심층 인터뷰 · 인터넷 설문	
설문 참여 수	삼덕동 벽화마을	옹기종기 행복마을
	현장조사 20명, 인터넷조사 30명	현장조사 36명, 인터넷조사 23명
설문의 주요 내용	·응답자 특성 ·벽화마을 만족도 ·마을 만들기 사업 인식도 ·사회 환경적 전망	
문항 수	30개 문항	
설문지 배포 일시	2016년 11월 5일 ~ 2016년 11월 19일	

현장조사의 응답자의 특성은 삼덕동(65%)과 옹기종기(61%) 모두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연령대는 20대가 삼덕동(70%)과 옹기종기(84%) 모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벽화마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얻은 방문객(85%/81%)이 많았다. 또한 벽화마을을 방문한 이유도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80%/84%)이 대부분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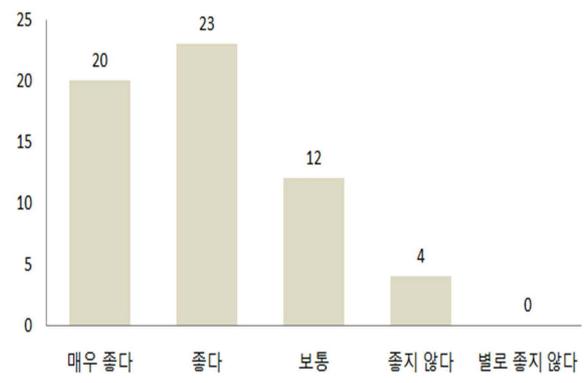
인터넷 설문 응답자는 여성(52%), 남성(47%)의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모두 20대(100%)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매체 특성 상 젊은 연령대의 방문객만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벽화마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SNS(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벽화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1) 벽화마을 방문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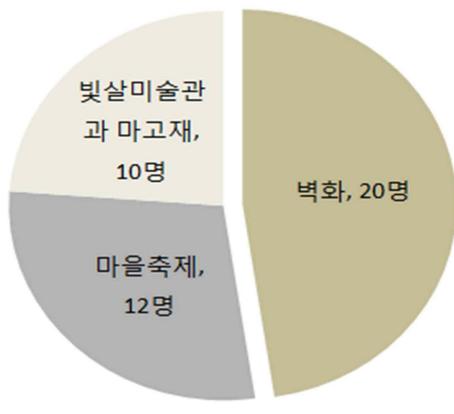
< 그림 7 > 삼덕동 벽화마을 방문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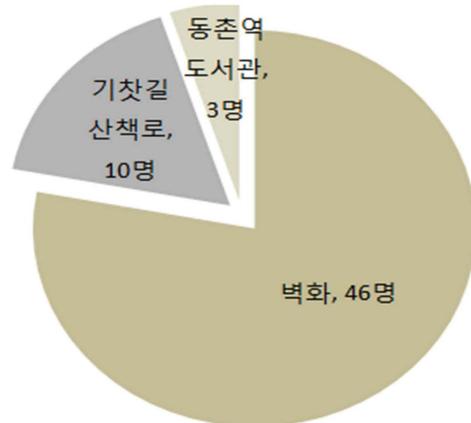
< 그림 8 > 옹기종기 행복마을 방문객 만족도

삼덕동 벽화마을과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방문객 만족도를 현장조사와 인터넷 설문을 종합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마을 모두 벽화마을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시설물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삼덕동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65%)의 비율이 높았는데, 대부분 잘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방문했을 때 빛살미술관과 마고재의 운영 시간이 따로 공지되어있지 않아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옹기종기는 이용해본 응답자(31%)에 비해 모르거나 이용해보지 않은(69%)응답자가 많았다. 기찻길 산책로의 경우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이용하지만 동촌역 도서관의 경우는 아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설문외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46%)와 이용한 응답자(54%)의 비율이 비슷했다.



< 그림 9 > 삼덕동에서 가장 마을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장소



< 그림 10 > 옹기종기에서 가장 마을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장소

삼덕동 현장조사와 인터넷 설문을 합친 결과, 마을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장소로 벽화 28명, 마을축제 12명, 빛살미술관과 마고재 10명으로 나타났다. 옹기종기 벽화마을과는 다르게 마을 축제가 열리는 삼덕동 벽화마을에서 마을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을축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경우 벽화 46명, 기찻길 산책로 10명, 동촌역 도서관 3명으로 나타났다. 동촌역 도서관의 경우에는 방문객 특성상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응답이 없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경우 벽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벽화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 > 벽화마을에서 불편한 시설이나 문제점 (단위 : 명/%)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조사	옹기종기 현장조사	옹기종기 인터넷조사
음료시설의 부족	9(45)	8(26.7)	13(36)	7(30.4)
공공시설의 부족	3(15)	4(13.3)	0(0)	5(21.7)
상업시설의 부족	4(20)	1(3.3)	14(39)	3(13)
지역주민들의 불친절	0(0)	2(6.7)	0(0)	0(0)
기타	4(20)	3(10)	9(25)	1(4.3)
없음	0(0)	12(40)	0(0)	7(30.4)
합계	20(100)	30(100)	36(100)	23(100)

삼덕동의 경우 동성로 일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족에 있어서 큰 응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음료시설의 부족’의 경우 ‘없다’는 응답 다 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삼덕동 3가 특성상 주거지역으로 음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료시설에서 주점의 부족에 해당하는 부분 때문에 응답이 높은 것으로 추 측해볼 수 있다. 옹기종기의 경우는 ‘없음’ 외에는 ‘음료시설의 부족’이나 ‘공공시설의 부족’의 응답이 5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주변 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두 마을 모두 관광객 유치에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방문객의 요구사항이 공통 된 것일 경우에 의견의 조율을 통하여 주변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 표 5 > 벽화마을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장 불편했던 장소 (단위 : 명/%)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조사	옹기종기 현장조사	옹기종기 인터넷조사
벽화	11(55)	0(0)	3(8)	1(4.3)
마을축제	3(15)	3(10)	0(0)	0(0)
빛살미술관·마고재	6(30)	3(10)	0(0)	0(0)
기차길산책로·쉼터	0(0)	0(0)	6(17)	1(4.3)
동촌역 작은 도서관	0(0)	0(0)	9(25)	0(0)
없음	0(0)	24(80)	18(50)	21(91.3)
합계	20(100)	30(100)	36(100)	23(100)

벽화마을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장 불편했던 장소에 대한 물음에서는 인터넷 조사는 대체적으로 불편한 장소가 없음(80-90%)을 응답했으나 현장조사는 마을의 특별한 장소나 벽 화를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조사는 응답자 특성상 벽화마을 사업 이전에 방문 하였거나 방문시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혹은 방문객들은 마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벽화마을에 대해 어떤 장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고, 삼덕동의 경우 마을 축제나 빛살 미술관·마고재를 선택한 응답자 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지역 이미지의 개선이 이루어졌 는가에 삼덕동 현장조사는 보통(40%)과 부정적 의견(45%)이 많았다. 이는 아무래도 벽화마 을의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옹기종기현장조사는 긍정적인 의견(75%)이 많았고 대부분의 방문객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조사에서는 두 마을 모두 긍정적인 의견(70%)로 나타났고,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했다. 보수·관리미흡 또한 두 마을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많았다(44.5%, 56%).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회성과 지속적 관리의 부재를 묻는 문항에서는 삼덕동에서는 매우 그 령다(40%)와 그렇다(25%)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옹기종기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8%)나 그렇다(25%)의 답변보다 아니다(39%)와 전혀 아니다(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설 문조사에서는 두 마을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렇다는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났다 (35%, 33%), 마을의 시설정비에 관한 문항에서는 삼덕동 현장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답변(50%) 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옹기종기 현장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64%)이 높게 나타났다.

현장 설문과 인터넷 설문의 경우를 확인해보면 시설정비에 대한 응답이 긍정일수록, 사업의 일회성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시설 및 벽화의 보수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과 사업의 일회성 정도에 대한 의견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덕동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설문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대해 모르고 있음(75%)이 나타났다. 옹기종기의 경우도 마을 만들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33%)와 전혀 모르겠다(39%)의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설문 또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모르고 있음(72%)로 나타났다.

간단하게 마을 만들기에 대해 설명 한 뒤 마을 만들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삼덕동에서는 긍정적(25%)이라는 의견보다 부정적(45%)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옹기종기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관이 좋아졌다는 영향에 대해 대다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3) 사회 환경적 전망

< 표 6 >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단위 : 명/%)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 조사	옹기종기 현장조사	옹기종기 인터넷조사
주민	9(45)	15(50)	19(53)	11(48)
정부	4(20)	4(13)	11(31)	9(39)
시민단체	7(35)	8(27)	6(16)	1(4)
외부 전문가	0(0)	3(10)	0(0)	0(0)
기타	0(0)	0(0)	0(0)	2(9)
합계	20(100)	30(100)	36(100)	23(100)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삼덕동과 옹기종기 모두 주민과 정부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삼덕동의 경우 시민단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옹기종기에 비해 시민단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삼덕동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45%), 정부(20%)가 각각 차례로 많았으며, 옹기종기의 경우는 주민(53%), 정부(31%)가 많았다.

< 표 7 > 마을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단위 : 명/%)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 조사	옹기종기 현장조사	옹기종기 인터넷조사
적극적으로 찬성 한다	2(10)	4(13)	10(28)	3(13)
찬성한다	13(65)	13(44)	13(36)	17(74)
잘 모르겠다	5(25)	12(40)	7(19)	3(13)
거부 한다	0(0)	1(3)	6(17)	0
적극적으로 거부 한다	0(0)	0	0(0)	0
합계	20(100)	30(100)	36(100)	23(100)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문항에서는 두 마을 현장·인터넷 설문조사 모두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마을 만들기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에 대

해서는 의문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표 8 > 응답자의 거주지에 도시 문화 재생 사업의 추진에 대한 수용 (단위 : 명/%)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 조사	용기종기 현장조사	용기종기 인터넷조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2(10)	4(13)	9(25)	3(13)
수용한다	8(40)	8(27)	17(47)	13(57)
잘 모르겠다	7(35)	15(50)	10(28)	6(26)
거부한다	3(25)	3(10)	0(0)	1(4)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0(0)	0	0(0)	0
합계	20(100)	30(100)	36(100)	23(100)

응답자의 거주지에 도시 문화 재생 사업의 추진에 대한 수용에 대한 문항에서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와 거부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도시 문화 재생사업의 수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거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가 관광지화가 될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 표 9 > 벽화마을에서 장려해야할 측면 (단위 : 명/%) (3개 복수응답)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조사	용기종기 현장조사	용기종기 인터넷조사
의형적 변화	0(0)	10(11.5)	25(23)	9(13)
주민들의 화합	8(13)	3(3)	10(9)	6(8)
정부나 단체의 재정적 지원	18(30)	15(17)	23(21)	9(13)
관광객과의 소통	3(5)	11(12)	20(19)	11(16)
환경 미화 관리	7(12)	14(16)	15(14)	8(12)
벽화와 시설의 지속적 관리	14(23)	21(23)	12(11)	14(20)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10(17)	10(11.5)	3(3)	8(12)
유희 공간의 활용	0(0)	3(3)	0(0)	2(3)
무응답	0(0)	3(3)	0(0)	2(3)
합계	60(100)	90(100)	108(100)	69(100)

마을에서 장려해야할 측면에 대한 문항에서는 인터넷과 현장 조사 모두 대체적으로 정부나 단체의 재정적 지원, 벽화와 시설의 지속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벽화마을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논문(구경하,2016)과 연관 지을 수 있었다. 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참여한 마을 공동체가 단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10 > 벽화마을에서 개선되어야할 측면 (단위 : 명/%) (3개 복수응답)

응답	삼덕동 현장조사	삼덕동 인터넷 조사	용기종기 현장조사	용기종기 인터넷조사
벽화 유지·보수비용 부담	17(28)	18(20)	26(25)	15(22)

주민들의 화합	10(17)	9(10)	13(12)	4(6)
정부나 단체의 무관심	16(26)	9(10)	20(17)	12(17)
사생활 침해	5(9)	17(19)	19(18)	14(20)
쓰레기·소음문제	12(20)	25(28)	16(15)	14(20)
기타 시설 필요	0(0)	11(12)	8(7)	10(15)
무응답	0(0)	1(1)	6(6)	0(0)
합계	60(100)	90(100)	108(100)	69(100)

벽화마을에서 개선되어야 할 측면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삼덕동은 현장조사에서는 벽화 유지·보수비용 부담, 정부나 단체의 무관심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인터넷조사에서는 쓰레기·소음문제와 사생활침해가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옹기종기의 현장조사에서는 벽화 유지·보수비용 부담, 사생활 침해 순으로 인터넷 조사에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기타시설 필요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슷한 응답수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한다면 앞서 조사한 표9. 응답자 거주지의 도시 문화 재생사업의 추진에 대한 수용의 응답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심층면접

마을 만들기의 인지도 조사의 결과로는 옹기종기나 삼덕동 둘 다 대체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두 마을 다 경관이 많이 좋아졌고 시설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허나 옹기종기의 경우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 벽화의 보수 문제가 있다고 했고, 삼덕동의 경우는 주변 시설이나 벽화의 보수 측면에서의 주민 참여가 부족했다고 느꼈다 한다. 벽화마을로 인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에는 두 마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허나 옹기종기에 비해 삼덕동은 주민들 간의 화합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옹기종기가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자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마을 간의 결속력이 좋다고 생각된다.

마을 만들기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두 마을 다 벽화를 그리라고 담벼락을 제공했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삼덕동의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사업의 홍보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 또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옹기종기의 경우에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벽화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미관적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벽화의 주제의식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삼덕동의 벽화 그림 또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의 주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삼덕동에서는 마을 축제도 열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축제의 존재 여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참여했으나 의미를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러한 축제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었다.

주변 시설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마을 모두 대부분 자주 이용한다는 반응이었으나 삼덕동의 경우에는 빛살 미술관과 자전거 제작소가 어디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주변시설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벽화마을의 보전과 발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두 마을 다 많았다. 허나 이를 위해서는 벽화의 개수나 질적인 부분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두 마을이 입을 모았고, 또한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삼덕동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옹기종기의 경우에는 구청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주민은 마을이 형성 된 지

40년인데 밀바탕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집 한 집 씩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각 마을의 보수나 개선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옹기종기에서는 기찻길의 보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낭비의 문제를 언급했고, 삼덕동의 경우에는 빛살 미술관과 자전거 제작소의 경쟁력 향상을 언급했다. 두 마을 모두 벽화의 개수와 주제의 통일로 인한 마을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두 마을 모두가 대체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4) 도시문화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벽화마을 문제점 도출

주민과 관광객 모두 현재 벽화마을에 있는 벽화의 종류와 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벽화의 개수가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벽화들이 마을의 정체성이나 지역 이미지와 관련이 적다고 보았다. 삼덕동 벽화마을의 경우에는 빛살 미술관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벽화마을 거주민들은 벽화마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벽화마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로 잘 알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또 소음이나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고,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있는 기찻길 그림은 자주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곳에 투자되는 비용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은 벽화가 지역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다수가 응답했으나 벽화 외에 대표로 고를 만 한 것이 없어 선택한 경우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마을 정체성이나 지역 이미지에 관련 없는 벽화가 다수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불편했던 점을 조사 결과 음료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재를 호소했다. 또, 대부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벽화마을의 존재유무를 알게 되었기에 관측물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관광객들이 벽화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2) 해결방안

마을 주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벽화의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벽화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 벽화의 개수를 늘릴 때에는 단순히 양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벽화가 마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을 회의를 거쳐 벽화의 주제를 정한 뒤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삼덕동의 경우는 빛살 미술관의 역할을 밝히고 개방 시기를 팸플릿에 공지하거나 인터넷에 알리는 방안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거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주민들은 벽화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벽화 사업의 진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소음이나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관람예절의 향상이 필요하고 또한 마을입구 등지에 팻말을 통해 안내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옹기종기 행복마을의 기찻길의 경우는 자주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특수한 페인트칠을 하거나 주기를 다시 선정하여 재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감

소를 엿보아야 한다.

관광객들의 불만사항 또한 벽화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벽화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벽화마을 주변의 공공시설이나 음료시설의 불편한 점을 호소한 것을 보아 주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벽화마을의 홍보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구관광책자와 같은 판촉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벽화의 위치가 정확하게 공시된 곳이 없어서 어디에 어떤 벽화가 위치하는 경우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이에 벽화의 위치를 표시한 벽화마을 지도를 마을 초입에 비치해 둔다면 관광객들에게 있어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한계점

대구광역시 중구의 삼덕동 벽화마을과 동구의 용기중기 행복마을을 통해서 도시문화재생 사업에 따른 마을환경 및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알아보려던 변화를 알아채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여 관광객의 인식 조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인식과 주민들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두 마을의 사업 주체대상의 차이에서 동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한 용기중기 행복마을의 경우는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외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시민단체가 개입한 삼덕동 벽화마을의 경우는 외적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마을 주민들의 경우 생각보다 벽화마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벽화마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담벼락을 제공하는 것뿐이고, 벽화의 주제나 테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주체 측과의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삼덕동의 경우 벽화마을의 시설물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빗살 미술관과 자전거 제작소는 충분히 방문객을 불러들이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벽화는 벽화마을이라고 하기엔 많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마을 축제의 경우에도 축제의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마을축제를 다녀왔음에도 목적의 부재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벽화가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입체적인 조형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시설이 확충되지 않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삼덕동 주민들의 경우 조사대상이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아서 변화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에 조사 대상으로 부적절 했던 점이 있다. 또, 주민의 거주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가 있어 이러한 변화를 눈치 채기 어렵고, 주민들의 참여나 마을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대안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인터넷설문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기에 신뢰도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기중기 행복마을의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의 연세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오랫동안 살았기는 하나, 벽화마을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대해서 모두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조사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몇몇 주민들의 경우에는 벽화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시간과 다른 시간에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점을 이야

기하였는데 이는 아마 진행하는 동구청의 경우 공공기관이기에 공무원들의 업무시간과 주민들의 시간이 다른 한계를 갖고 있다.

방문객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일정기간만 진행되고 일회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아 벽화마을에 대한 만족도는 있으나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마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마을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에 마을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하고, 이용 시설의 정보를 확충한다면 마을의 정체성과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혹시 모를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 간의 소음이나 쓰레기로 인한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른 벽화마을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벽화마을이 가지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거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마을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구경하, 2016, 정부주도마을만들기활동의지속성,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논문, 39-59
- 권영식, 2014, 마을만들기사업지역주민의주거만족도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 석사 논문, 48-78
- 김광일, 2011, 벽화의노후주거지재생효과에관한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학술지, 29Vol, 5-14
- 김다혜, 2016, 벽화마을방문객의경관선호가방문동기와만족에미치는영향연구, 한양대학교, 77-80
- 김주현, 2014, 도시재생사업이주민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대구광역시남구문화, 예술생각대로를중심으로, 대구대학교. 6-7
- 김주현 · 전경구, 2015, 도시재생사업이주민만족도와공동체활성화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217-219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특집]우리나라마을만들기의현재와앞으로의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통권제371호, 3-20
- 박신의, 2015, 문화를통한지역재생vs. 젠트리피케이션의그림자:문화의역할에대한비판적성찰-이화동사례를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8(2)호통권15호, 5-9
- 백재은, 2015, 문화주도적젠트리피케이션현상분석을통한도시재생정책연구:홍대앞문화예술생태계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 16-23
- 성영아 · 변민주, 2013, 벽화마을의보존과계승을위한정체성구현에관한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44-246
- 송효진, 2011, 공공미술프로젝트를통한마을만들기: 통영동피랑마을의관광지화, 고려대학교대학원. 14-30
- 신은주 · 유창균 · 조성진, 2015, 도시재생사업계획지표에관한지역주민의가치평가연구:목포시지역주민을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 71-81
- 안지은 · 이예분 · 차아영 · 박경옥, 2014, 도심노후주거지벽화마을의지속가능한주거지재생방안, 한국주거학회2014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제26(2). 245-250
- 윤옥경, 2008, 도시지역만들기의사례와시사점:대구삼덕동을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14(5). 466-479
- 이선영, 2016, 닐스미스와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한국, 공간과사회26(2)호통권제5호, 209-235
- 이승우, 2013, 도시재생사업의본질과재산권보장의관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내용을중심으로, 公法研究第42輯第1號, 241-269
- 임동희, 2013, 지역사회구축을위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작용연구:새마을운동과마을만들기사업을중심으로, 가천대학교, 38-77
- 정성규, 2016, 추진주체의참여실태분석을통한도시재생사업개선방향에관한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16-21
- 정하나, 2014, 벽화마을사업이거주민의지역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종로구이화동벽화마을을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31-109
- 조윤미, 2011, 국내벽화마을만들기의성공요건분석, 가천대학교. 37-39
- 최수연 · 백현철, 2016, [도시재생사례]젠트리피케이션을막아라, 한국리모델링협회. 46-49
- 홍종열, 2012, 창조경제시대의문화산업과지역문화정책,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12(2), 819

[도심속마을공동체]담장헐어넓힌도심공간-개구리사는연못으로, (매일신문2012.05.17.),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487&yy=2012)

대구동구청 '용기종기 행복마을' 조성화제, (뉴시스2013.12.1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5_0012593360&cID=10810&pID=10800)

대구동구청, 친환경용기종기 행복마을공모, (경북일보, 2014.05.12.),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54499&news_area=030&news_divide=&news_local=20&effect=4)

대구중구청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dgjunggu/10184571638>)

대구광역시중구청(<http://www.jung.daegu.kr/news>)

대한민국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문화가찾아준행복마을의온기, (대구일보, 2014.06.11.), (<http://www.idaegu.com/?c=5&uid=295534>)

삼덕지하보도, 아름다운벽화로' 재탄생', (매일신문2007.6.1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541&yy=2007)

제3부대구의새로운지도(4)삼덕동마을만들기, (영남일보, 2014.7.1.),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701.010080735440001>)

주민이참여해야마을이산다<3>마을만들기원조대구삼덕동, (경남일보, 2013.10.17.), (<http://www.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11>)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